

II 연도



II. 연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연도의 주요 항으로 연도항과 역포항이 있다. 연도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34.7km 떨어져 있고, 인근의 안도항까지는 6.7km, 금오도의 남면 여객선터미널까지는 9.1km 떨어져 있다. 역포항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32.4km 떨어져 있으며 안도항까지는 4.1km 떨어져 있다.



연도항

2) 인구현황과 토지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연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 등록상 259세대 410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이중 남자는 209명, 여자는 201명이다. 연도는 남면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섬으로, 총면적은 6.932km², 해안선 길이는 35.6km이다.



역포선착장

인구현황(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연도	259	410	209	201



연도마을 전경



역포마을 전경



연도마을 전경(2010년)



역포마을 전경(2010년)



까랑포마을



덕포마을

3) 공공기관

(1) 연도중계민원처리소

1956년 당시 여천군 소속이었던 연도에 출장소가 개소하였다. 1968년 행정리를 개편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역포 등 5개 행정리를 운영하다가 1971년 연도와 역포 2개의 행정리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1998년 4월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 연도출장소에 속했다가 2007년 연도중계민원처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1956. 여천군 남면 연도출장소 개소
 - 1968. 5개 행정리 운영(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역포)
 - 1971. 03. 31. 2개 행정리 운영(연도, 역포)
 - 1998. 04. 01. 3여 통합 여수시 남면
 - 2007. 07. 01. 여수시 남면 연도중계민원처리소 명칭 변경



연도중계민원처리소



연도출장소(2008년)

(2) 여수경찰서 연도치안센터

1955년 연도경찰행정연락소가 설치되었으며, 1977년 연도리 1619-2번지에 21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설하였다. 1979년 12월 연도경찰출장소로 개칭하였다가 다시 1995년 1월 남면파출소 연도초소로 개칭되었다. 2016년 8월 연도리 1619-23번지에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이전하고, 2017년 2월 여수경찰서 연도치안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 1955. 연도경찰행정연락소 설치
 - 1977. 연도리 1619-2번지에 벽돌슬레이트 21평 건물 신축
 - 1979. 12. 13. 연도경찰출장소로 개칭
 - 1995. 01. 25. 남면파출소 연도초소 개칭
 - 2016. 08. 연도리 1619-23번지 2층 신축
 - 2017. 02. 여수경찰서 연도치안센터로 명칭 변경



여수경찰서 연도치안센터



연도파출소(2008년)

(3) 연도우체국

1966년 12월 연도리 1675-1번지에 안도우체국연도분국이 개설되었다. 이후 1986년 10월 연도리 1619-9번지에 54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1989년 2월 연도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1966. 12. 31. 연도리 1675-1번지에 안도우체국연도분국 개설
 - 1986. 10. 25. 연도리 1619-9번지에 철근콘크리트 54평 건물 신축 이전
 - 1989. 02. 22. 연도우체국 개칭



연도우체국



연도우체국(2008년)

4) 교육기관

(1) 연도초등학교

1918년 4월에 개량서당으로 출발하여 1년여 운영되다가 1920년에 사립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923년 교실 4곳이 신축되어 4년제 3학급으로 운영되었다. 1935년 태풍으로 전 교사가 파괴되어 서부리 사무소가 임시교실로 사용되었다.

1937년 연도심상소학교추진회가 발족되어 1939년 교지 4,152m²을 확보하고, 1940년에 건물을 준공했다. 1940년 6월 8일 6년제로 설립 인가되어 그해 10월 23일 연도심상소학교로 개교했다. 1968년 5월 27일 본교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역포에 2학급의 역포분교장이 개설되었다.

1978년에는 당시 문교부에 의해 ‘급식시범학교’, 1981년에는 ‘도서벽지교육연구학교(초중병설)’로 지정되었고, 1991년 군 지정 ‘밝은 학교 즐거운 교실 시범학교’로 운영되었다. 인구와 세대수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로 인해 1999년 3월 1일 연도초등학교와 연도중학교가 통합되어 연도초·중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다 2014년 3월 1일 연도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2009년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장이 통폐합되었으며, 2022년 3월 여남초등학교 연도분교로 격하되었다.



연도초등학교

- 1940. 10. 23. 연도사립심상소학교 개교(연도리 424번지)
- 1946. 10. 14. 연도공립국민학교로 개칭
- 1949. 04. 01. 연도국민학교로 개칭
- 1987. 01. 17. 연도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인가
- 1999. 03. 01. 연도초등학교와 연도중학교가 통합되어 연도초·중통합운영학교로 운영
- 2009. 03. 01.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장 통폐합
- 2014. 03. 01. 연도초등학교로 개칭
- 2022. 03. 01. 여남초등학교 연도분교로 개편

• **교가 :**

신광도 푸른 물결 고인 물 씻어 내고
 필봉산 맑은 정기 사시로 새롭구나
 여기에 연도교 조용히 자리 잡고
 손잡고 모여 들어 참된 길 찾으려네
 저 건너 언덕 위에 등대불
 다같이 나가자 빛내자 우리 모교

• **교목 :** 동백나무

(군선 의지, 신선함, 아름다운 마음)

• **교색 :** 녹색

(신선함, 희망, 의지)

• **교화 :** 동백꽃

(아름다움, 우아함, 순수)

(2)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장

1968년 6월 29일 연도국민학교 역포분교장이 설립인가되어 연도리 1238번지에 개교하였다. 1981년 연도리 912번지에 벽돌슬라브 74평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1982년 3월 1일 연도국민학교병설 역포유치원이 개원하였으나 학생수 감소로 1983년 2월 28일 폐원되었다. 1996년 3월 1일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명됨에 따라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장으로 개명되었다. 인구와 세대수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로 인해 2009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 1968. 06. 29. 연도국민학교 역포분교장 설립인가
- 1968. 05. 27. 연도국민학교 역포분교장 개교(연도리 1238번지)
- 1981. 연도리 912번지에 벽돌슬라브 74평 건물 신축 이전
- 2009. 03. 01. 연도초등학교 역포분교장 통폐합



역포분교



역포분교(2008년)

(3) 연도고등공민학교

1950년 7월 11일 연도리 1619-1번지에 학생 35명으로 연도고등공민학교가 설립(설립자 김형수)되었다가 1983년 1월 5일 제31회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폐교되었다.

(4) 여남중학교 연도분교장

1981년 1월 여남중학교 연도분교장으로 인가되어 같은해 3월 연도리 424번지에 건물을 짓고 연도국민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이 개교하였다. 1999년 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 통합운영학교로 개칭되었다가 학생 수 감소로 2014년 3월 폐교되었다.



연도초중통합운영학교(2008년)

-
- 1981. 01. 31. 여남중학교 연도분교장 병설인가
 - 1981. 03. 01. 연도국민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병설) 개교(연도리 424번지)
 - 1999. 03. 01. 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 통합운영학교 개칭
 - 2014. 03. 01. 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 폐교

5) 의료기관

(1) 연도보건지소

1980년 연도리 407-3번지에 1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개소하였다. 1989년 같은 자리에 2층 2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2004년 연도서부안길 17에 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가 최근 리모델링하였다.

-
- 1980. 연도리 407-3번지에 벽돌슬라브 10평 건물 신축 연도보건지소 개소
 - 1989. 벽돌슬라브(2층) 25평 건물 신축,
 - 2004. 연도서부안길 17에 50평(2층) 건물 신축 이전
 - 2021. 리모델링 공사



연도보건지소



연도보건지소(2008년)

6) 기타

(1) 여수농협 남면지점 연도출장소

1975년 9월 연도리 426-3번지에 남면단위농협 연도분소가 개소하였다. 1989년 3월 남면단위농협 연도지소로 개칭하였다가 1992년 1월 남면농협 연도지소로 개칭하였다. 1998년 여수농협 연도지소로 합병된 후에 2011년 여수농협 남면지점 연도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수농협 연도출장소

- 1975. 09. 17. 남면단위농업협동조합 연도분소 개설(연도리 426-3번지)
- 1989. 03. 16. 남면단위농업협동조합 연도지소로 개칭
- 1992. 01. 01. 남면농업협동조합 연도지소로 개칭
- 1998. 02. 10. 여수농협 연도지소 합병 후 명칭 변경
- 2011. 03. 01. 여수농협 남면지점 연도출장소 명칭 변경

(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리도항로표지관리소

1910년 5월 10일 연도리 2030-2번지에 전국에서 21번째로 소리도등대가 설치되었다. 수차례의 개보수를 거쳐 1988년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소리도항로표지관리소로 개칭하였다. 몇 차례 소속과 명칭이 바뀌다가 2015년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리도항로표지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리도항로표지관리소



소리도등대

(3) 연도어업협동조합(폐소)

1940년 1월 1일 연도리 1619-3번지에 연도어업협동조합이 개설되었다. 1962년 12월 31일 연도어업협동조합이 폐지되고, 안도어업협동조합에 합병하였다.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남쪽에는 증봉(甞峰 231m)이 솟아 있다. 북쪽은 150m 내외의 구릉지를 이루며 중앙부의 저지대에 농경지가 분포한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중성 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은 전체적으로 중앙부가 양옆으로 깊게 만입된 지협부를 이루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듯하다. 해안에는 북동쪽의 역포만(力浦灣)을 비롯해 중앙부와 남쪽에 만이 있고, 모경말·배미말·대룡단 등으로 불리는 해식애의 돌출부가 곳곳에 발달해 있다. 만 안의 사빈해안을 제외하면 암석해안이 대부분이다.

연도는 남면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배를 타고 섬 주위를 돌면 해식애, 해식동, 씨아치 등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을 볼 수 있다. 강한 파랑 에너지를 직접 받는 연도의 남서쪽 해안에는 바위의 약한 부분이 침식을 많이 받아 코굴, 솔팽이굴과 같은 해식동(Sea Cave)이나 코끼리 바위와 같은 씨아치(Sea Arch)를 이루고 있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며 비가 많이 내린다.



코굴



코끼리바위

(1) 암석해안

연도는 섬 남쪽 대룡단과 소룡단을 중심으로 해식애와 많은 해식동이 발달하였다.

(2) 해식동

대부분 해식동은 해식애의 기저부에 발달한 것으로 폭보다 높이가 높은 곳이 많고 대개 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 조류, 연안류의 작용을 받아 해안에 형성된 동굴이다.

2) 지질

대룡단, 소룡단이 있는 섬 남부는 중생대 백악기 섬록화강암(kdgr)이 분포하고, 그 외 지역은 안산암질 화산각력암(kadf)이 분포한다.



연도 지질도(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3) 토양

연도 일원의 토양은 안산암질 응회암에서 풍화된 토양과 화강암 풍화토가 일부 분포한다.

4) 기후

연도는 여름철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한랭건조한 기후의 특성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연교차는 22.6°C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4.9°C, 8월 평균기온 26.11°C, 1월 평균기온 3.48°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427.9mm, 8월 평균강수량 247.3mm, 1월 평균강수량 25.3mm 정도이다. 무상기일은 평균 332일, 안개 끼는 날은 20일, 맑은 날은 70일, 흐린 날은 100일, 강수일은 약 70일 정도이다.

풍향은 여름철 남서풍 내지 서남서풍의 비율이 높고, 풍속은 3.4~7.9% 정도이다. 반면 겨울철에는 북북서풍 내지 남서풍 비율이 높고, 풍속은 3.4~7.9% 정도로서 여름과 겨울 최대풍속은 비슷하지만, 여름철보다 겨울철 풍속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다.

연도의 풍향·풍속(2017년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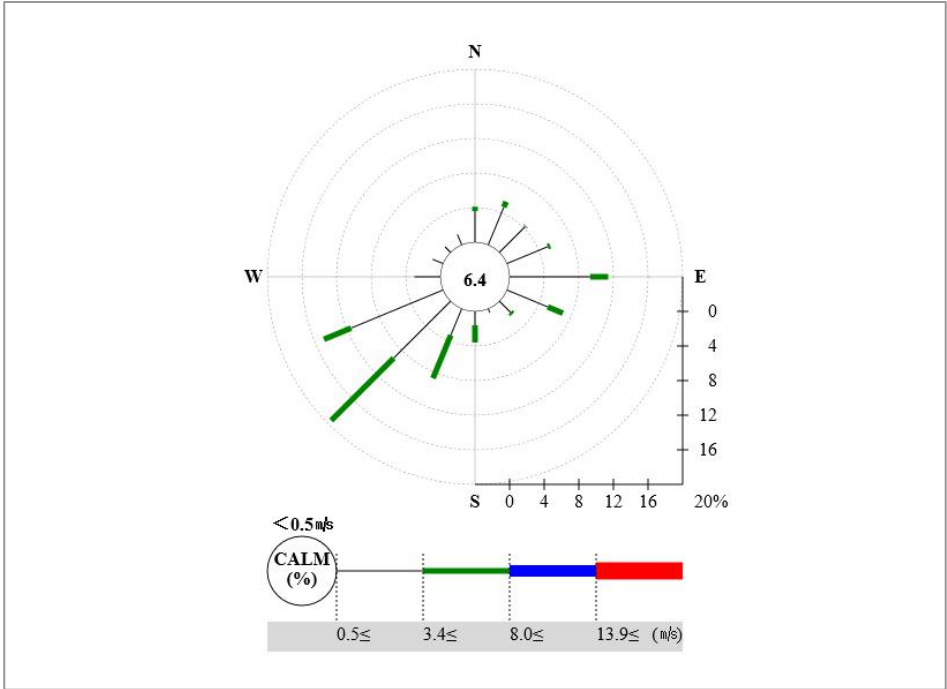
풍속	정온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합계
~0.4	6.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4
0.5~3.3	0	3.6	4.7	4.2	5.1	9.3	5.1	1.8	0.5	1.6	3.3	9.3	11.5	3	1.3	0.9	1.3	66.5
3.4~7.9	0	0.5	0.7	0.1	0.3	2.1	1.9	0.3	0	2	5.4	10.2	3.4	0	0	0	0	27.1
8.0~13.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6.4	4.1	5.4	4.3	5.3	11.4	7	2	0.5	3.7	8.7	19.5	14.9	3	1.3	1	1.4	100

출처: 기상청(관측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연도리 소리도 34° 26' N 127° 48' E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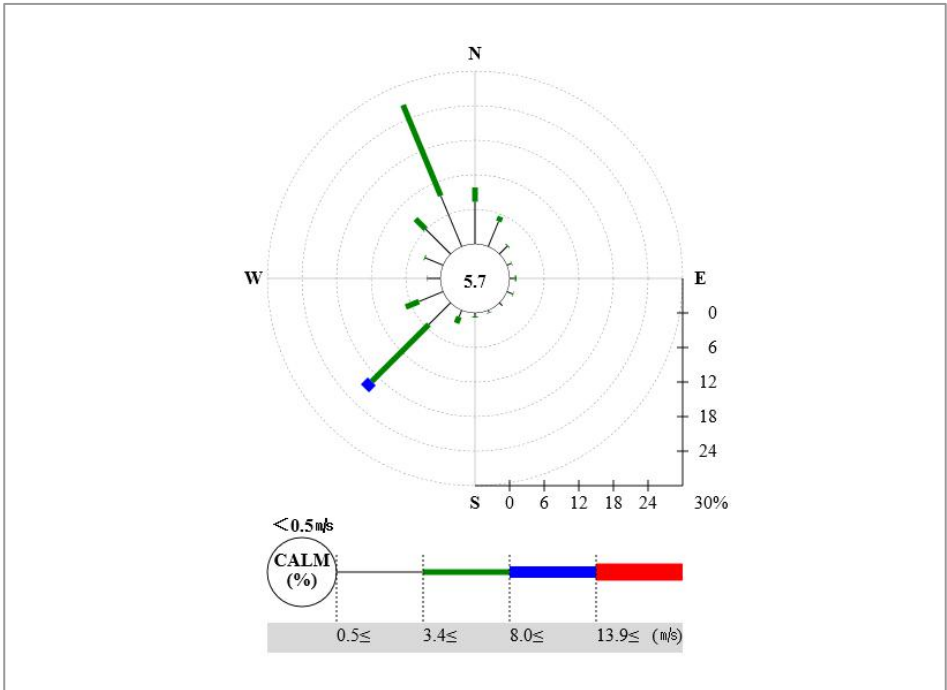
연도의 풍향·풍속(2017년 겨울)

풍속	정온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합계
~0.4	5.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7
0.5~3.3	0	7.3	4.7	1.9	0.8	0.9	1.1	0.7	0.4	0.6	1.2	5.3	4.5	2.3	3.3	6.1	9.5	50.6
3.4~7.9	0	2.5	0.9	0.2	0.1	0.3	0.1	0	0.1	0.2	1.2	14	2.5	0.1	0.2	2.5	17.1	42
8.0~13.8	0	0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1.7
합계	5.7	9.7	5.7	2.2	0.9	1.2	1.2	0.7	0.5	0.8	2.4	21	6.9	2.4	3.6	8.6	26.6	100

출처: 기상청(관측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연도리 소리도 34° 26' N 127° 48' E 3.0m)



연도의 풍향·풍속(2017년 여름)



연도의 풍향·풍속(2017년 겨울)

5) 주변 해역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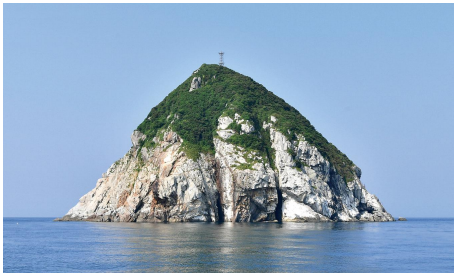
이 일대는 유속(流速)도 좁은 수로에서 최고 2.9km 정도로 매우 빠른 편이다. 평균수심은 35m 내외를 유지하며, 최대 수심은 약 50m 정도이다. 주변에 검등여와 신강여, 안마도, 구몽암 등 섬과 여(礮)가 많이 산재해 있어 항해 시 주의가 필요한 해역이다.

6) 주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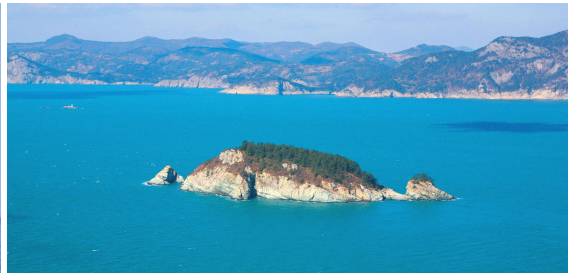
섬의 남쪽 바다에 있으며, 주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나머지는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주요 농산물로는 고구마·보리·쌀·무·마늘·콩 등이 생산된다. 연근해에서는 삼치·가자미·문어·갈치·도다리·송어 등이 잡히며, 자연산 김·전복·홍합 등이 채취된다.

7) 주변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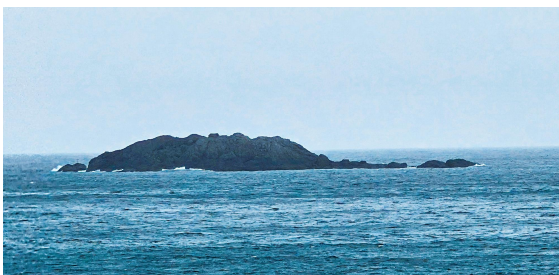
주변 도서로 북쪽에 안도와 접해 있고 무인 부속도서로 알마도와 소알마도, 작도, 간여 등이 있다.



작도



알마도



검등여



신여

다. 식생과 생태

연도는 남면의 가장 남단에 위치하여 난대성 기후에 가까우며 사철푸른 해안 식물이 풍부하다. 해안식물은 염분에 내성이 강하며, 갯벌이나 해변 근처에서 주로 자라며 조금 더 염분과 습도가 높은 환경을 선호한다.

연도는 식재종 및 재배종을 제외한 연도에 분포하고 있는 관속식물은 107과 312속 408종 2아종 51변종 5품종으로 총 466종류가 확인되었다. 이는 주변에 위치한 나로도 972종류와 거금도 758종류(김종홍과 박문수, 2004)보다는 적고 오동도 373종류(김종홍과 장석모, 1983)에 비해 많은 종 조성을 보인다.

그러나 나로도(49.4km²), 거금도(65.64km²)에 비해 면적이 좁고, 식재종 및 재배종이 포함된 종류이므로 연도의 관속식물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된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분류군은 국화과 10.52%, 벼과 7.73%, 콩과 5.36%, 장미과 4.82% 순으로 나타났다.¹⁾

1) 연도의 생태자원²⁾

연도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종은 구실잣밤나무, 모밀잣밤나무, 녹나무, 센달나무, 멸꿀, 새덕이, 참식나무, 까마귀쪽나무, 육박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다. 보존이 필요한 지역 특징 종으로는 애기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주요 식생 및 식물상³⁾

연도의 주요 식생은 곰솔군락과 구실잣밤나무군락이고, 부분적으로 모밀잣밤나무, 까마귀쪽나무, 육박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이 출현하고 있으며, 휴경지에 망초군락, 환삼덩굴, 수크령군락, 염습지에는 갈대, 칠면초 군락이 출현하였다.

이 지역의 특징은 큰지네고사리, 말냉이장구채, 바위취, 섬오갈피, 야고, 산자고장딸기, 애기등, 갯까치수영, 갯질경, 칠면초, 새끼노루귀, 멸꿀, 새모래덩굴, 남오미자, 생강나무, 개비자나무, 초피나무, 자란 등이 널리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스레피나무도 분포역이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민가 주변으로 쇠뜨기, 실고사리, 홀아비꽃대, 실새삼, 꽃향유, 그늘사초, 오리새, 이대, 맥문동, 자귀풀, 땃땃이덩굴, 실새풀, 주름조개풀, 띠, 억새, 보춘화, 짚신나물 등의 초본

1) 박문수, 조계중 「여수 연도의 식물상과 식생」, 한국환경생태 학회지 21(6).2007.

2) About전남의섬

3) About전남의섬

류와 예덕나무, 검양꽃나무, 단풍나무, 음나무, 작살나무, 병꽃나무, 우묵사스레피, 리기다소나무, 노간주나무, 국수나무, 자귀나무, 팔배나무 등의 목본류가 출현하고 있다.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에서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012년 연도리 산 422-1번지 12.9ha가 지정되었으며, 주요 분포하는 것은 곰솔, 후박나무, 굴피나무, 애기등, 우묵사스레피, 다정큼나무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식생



물오리

4) 육상동물⁴⁾

연도에 분포하는 조류는 팽이갈매기, 참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제비, 직박구리 등이 알려져 있다. 연도 주변 바다에 서식하는 좀수수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 해당한다.

5) 해양생물

조간대 암반 해안무척추동물은 편형동물 1종, 자포동물 3종, 유형동물 1종, 태형동물 1종, 성구동물 1종, 환형동물 14종, 연체동물 36종, 절지동물 46종, 극피동물 10종, 척색동물 1종으로 총 114종이 출현하였다. 인근의 금오도와 비슷한 해양생물이 분포한다.

4) About전남의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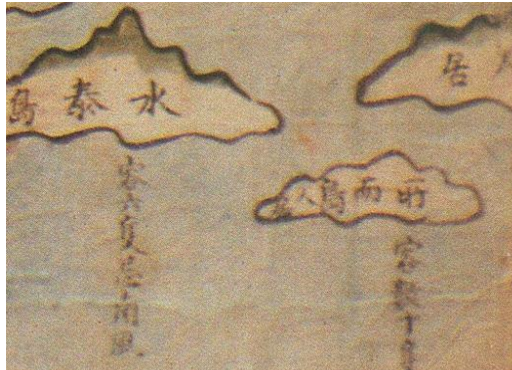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연도는 섬 모양이 솔개의 날아가는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소리도(솔개섬)’로 불리다가 솔개를 의미하는 소리개에서 연유하여 소리도(所理島)라고 부르기도 했다. 1396년(태조 5) 순천부에 속하면서 ‘솔개 연(鷲)’자를 써서 ‘연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896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돌산군 금오면에 속하였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여수군 금오면이 되었다. 1917년에 금오면을 남면으로 개칭하면서 여수군 남면 연도리가 되었고, 1949년 여천군이 설치되면서 여천군 남면 연도리에 속하였다. 1968년 행정리를 개편하여 5개 행정리(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역포)를 운영하다가 1971년 2개(연도, 역포) 행정리로 개편하였다.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 연도가 되었다.

1910년 소리도등대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 기상청에서 연도를 먼바다에서 앞바다로 변경하였다. 2018년 명품덕포마을이 조성되었다.



호남연해형편도

나. 마을유래

1) 연도마을

언제부터 마을에 사람이 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연도에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삼국 시대에 유배지에서 탈출한 사람이 뗏목을 타고 이 섬에 이르러 정착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온다. 망망대해에 떠다니다가 큰 섬을 발견하였으나, 사방이 절벽이라 상륙할 수가 없었는데 현재의 연도목에 보리수나무 등의 잡목이 우거진 사이로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간조시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바가지를 바다에 띄워 그 바가지를 따라 들어가서 지금의 연도만을 발견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1490년경 경남 남해에서 살고 있던 진주하씨 수익이

이주해 오고 이어서 같은 남해에서 진주김씨와 경주정씨 등이 이주해 왔으며, 이후 화양면 세포에서 살던 경주김씨 한인·한란 형제가 들어와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연도마을비



역포마을비

2) 역포마을

연도리에 속하는 마을이다. 1675년 같은 섬 연도마을에서 살고 있던 김해김씨 계수가 나무를 하러 이곳에 왔다가 포구가 살기가 좋은 곳으로 생각되어, 처음으로 길을 내고 정착하였다고 한다. 최초의 입도조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온 진주하씨로 전해지고 있으며, 임진왜란 후 진주김씨와 경주정씨 등이 입도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옛날 조정에서 죄인을 제주도로 유배 보낼 때 이곳을 거쳐갔다고 하며 마을 어귀에 '역마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역포(驛浦)'라 하다가 '역포(力浦)'로 고쳐 쓰게 되었다고 한다.

3) 덕포마을

연도마을 남쪽의 가랑목에 있는 마을로 동쪽 뒤에는 시루봉(필봉산)이 있고, 앞에는 떡개라고 부르는 개가 있다. 갯가에서 잡히는 해산물이 떡을 사먹을 정도로 다른 마을보다 많아서 떡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명품덕포마을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연도의 신석기 유물

연도에서 발견된 석기 유물은 1964년 필봉산 부근에서 5점의 돌도끼가 발견되어 여수시 충무동 106번지 염운섭 씨가 3점은 소장하고 있고, 2점은 논골 김유종 씨 밭에서 발견되어 본인이 소장하고 있다. 1967년 논골 밭에서 발견된 돌도끼 1점은 우학리의 김완용 씨가 소장하고 있고, 화돌 모양의 석기는 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연도의 신석기시대 유물 산포 지역은 연도리 1717번지이며, 다양한 토기편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돌도끼가 수습되었다.

연도마을회관에서 병포마을로 난 도로를 따라 약 800m 정도 가면 도로의 오른쪽에 밭들이 있는데 이 밭들의 끝에 조개더미가 위치한다. 이곳은 연도마을 북쪽에 위치한 중봉의 북서쪽 사면 끝으로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조선대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여수시의 문화유적』에서는 ‘연도 조개더미 유적’으로 표기되었다. 해안과 접하는 논이 조개더미가 위치한 밭보다 1m 정도 낮게 경

작되고 있고, 조개더미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이진 곳은 석축을 쌓아 패각층의 퇴적상황을 살필 수 없다. 조개더미유적은 논을 만들면서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패각은 잘게 부서져 있으며, 신석기시대 토기편에서부터 회청색경질 토기편까지 유물이 산재해 있다. 수습유물은 압인문토기편, 침선문토기편, 무문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다.



연도 수습 돌도끼

(1) 돌도끼

연도에서 1964년부터 돌도끼 5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3점은 필봉산 밑 300m 지점에서 밭을 개간하다가 발견해 서울대학교 박물관 김원용 박사가 감정하고, 서울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일본동경박물관에서 감정한 결과 중국 대륙의 석제로서 2,500~3,500년 이전 것으로 판명되었고 발견 당시 전남매일 신문기사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2점은 연도 남쪽 논골 김유중 씨의 논골 밭에서 발견되었는데 1점은 중국 석제이고, 1점은 순수한 한국산 돌도끼임이 판명되었다.

(2) 토기파편

1974년 당시 연도국민학교 교사인 이현중 향토연구가가 신석기 무문토기, 즐목문토기, 통일신라 토기 등 파편을 발견하여 경주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서 고증을 받아 남해안 최남단 도서 지방에도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음을 확인하였다.

2) 가우통보(嘉祐通寶)

남면과 관련된 고려시대 유물로는 유일하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백형선 연구원이 연도 농협에 근무할 때 필봉산에서 수습한 북송 인종 연간(1056-1063)에 발행되었던 가우통보가 있어서 고려시대 중국의 송나라와 교류를 짐작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송나라 가우통보(嘉祐通寶)



연도 필봉산 수습 가우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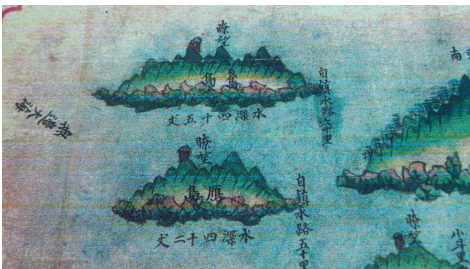
3) 연도요망(鳶島瞭望)

남면 연도리 산 402번지, 산 453-2번지, 산 403번지 일원의 북위 34° 26' 26.48" 동경 127° 48' 14.57"의 해발 230.5m의 증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증봉을 '필봉산'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 북쪽으로 역포마을이 있으며, 남쪽으로 소리도등대가 위치하고 있다. 금오열도의 끝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면사무소 소재지인 금오도와 안도가, 서쪽으로 고흥반도의 나로도가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망망대해다. 산정에서는 일대가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며, 맑은 날에는 삼산면 거문도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연도요망은 「조선후기의 지방도」의 「순천부지도(順天府地圖)」와 「순천방답진지도(順天防踏鎭地圖)」에 나타나는데, 「순천부지도」에는 해중의 연도 산사면에 황색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방답진지도」에는 해중의 연도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이라 표기하였다.

요망대는 1979년에 군 시설인 레이더기지가 들어서면서 훼손되어 연대 유적은 남아있지 않다. 2005년에 필봉산에서 수습한 북송 인종 연간(1056~1063)에 발행되었던 가우통보(嘉祐通寶)가 있어서 고려시대 중국의 송나라와 교류를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요망이 이때부터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산정의 주변에서는 그릇 편이 출토되었다. 해상의 적선을 가장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는 해망의 최전선 전초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망산망대 7.9km, 안도요망 7.0km, 향일암요망 18.7km, 개도요망 20.3km이다. 연도리의 남부마을에서 필봉산 정상부로 올라가는 산림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군사통제구역으로 이용할 수 없다.



순천방답진지도 연도요망



필봉산

라. 연도의 어제와 오늘

1) 일본인들의 어로활동

안도와 마찬가지로 연도에도 일본인들이 일찍 진출하였는데 『동아일보』 1928년 7월 17일자 기사를 통해 외래 자본의 침투에 따른 연도 주민의 어려움도 파악할 수 있다.

여수항에서 대경도·소경도 사이를 지나 왼쪽으로 돌산 섬과 송도·화태·나발·월호·제도를 지나 금오도를 오른쪽에 바라보고, 또 왼쪽으로 드넓은 태평양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안도·부도를 거쳐 소리섬(鳶島, '소리'는 솔개의 방언)에 들어가는 어귀 '승강이목'에 이른다.

승강이목이란 의미는 동쪽과 서쪽 한바다의 파도가 서로 부딪쳐 물결과 물결이 승강이를 하는 곳이라 하여 지은 것이며, 또 하나의 이름은 '썬염이(썬팽이)목'으로, 이것은 어류 가운데 가장 사나운 썬염이와 같이 물결이 사납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섬은 여수 열도의 제일 끝, 남해 가운데 20여 해리 떨어져 있는데, 주민이 230여 호, 인구 1,400여 명이나 되며, 논 400여 마지기, 밭 1,500여 마지기나 있는 작지 않은 섬이기 때문에 주민은 반농반어로 총생산액이 8~9만 원에 달해 숫자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 섬사람의 생활은 풍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너무 가난하여 학교 하나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 원인은 외래 자본의 힘에 생산물의 대부분을 바치게 되는 까닭이다. 소리도 토지의 70% 이상을 이 섬 밖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을 결국 그들에게 주고, 또한 해산물도 풍족하지만, 먹고살기 위해 미리 빌려 쓴 빚과 이자 갚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결국 1년 동안의 빚과 이자를 치르기 위해 농사짓고 고기를 잡는 셈이다.

영리한 자본가들은 중매인(仲商)을 시켜 약간의 돈을 섬에 퍼 놓고 농업과 수산업의 수확 시기가 오면 시장 가격(市價)과 상관없이 그때 가격으로 거둬 감으로써 돈을 빌린 섬사람들은 이자와 물건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2) 소리도등대 설치

1910년 12월 등대 초점등[후레넬 식 4등급], 1960년 3월 음파표지 설치[전기혼], 1979년 10월 610mm 등명기 개량, 1990년 7월 음파표지 에어사이렌을 개량하였다. 2004년 11월 등명기 개량[KRB-375], 2006년 12월 등대문화유산 제22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 3월 직원 숙소를 개량하였다. 2011년 11월 등대 종합정비공사를 통해 음파표지를 에어사이렌에서 전기혼으로 개량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해양수산부에서 2027년까지 유인 등대 11곳을 무인 등대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면서, 소리도 등대는 2021년 9월 무인등대로 전환되었다.

광파 표지 기종은 KRB-750[220V-700W]로 등질은 섬백광이며, 12초에 1섬광[FLW12s]씩 빛을 발한다. 등대에 접근하는 배에서 등대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리인 광달거리(光達距離)는 지리적으로 26마일[48km], 광학적 43마일[79km], 명목적 26마일[48km]에 달한다. 음파 표지는 공기 압축기로 54초마다 울리는데[취명 4초, 정명 50초], 음달 거리는 3마일[5.5km]이다.

연도의 가장 남쪽 소룡단에는 1910년 10월 최초로 불을 밝힌 소리도등대가 있다.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82m, 땅 위에서 9.2m 높이의 육각 철근콘크리트로 구조물이며, 내부에는 2층

구조로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등대는 밤에는 어두운 밤바다의 길을 열어주지만, 낮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알맞은 곳이다. 등대까지 가는 길은 삼림욕을 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의 휴식 공간과 해안 침식 지형이 주는 아름다움, 트인 바다 위로 멀리 백도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다.



소리도등대

3) 연도의 여순사건

연도의 경우 음력 9월 29일 5연대 1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비롯한 진압군이 덕포에 내려서 오후 5시경 마을에 진입하였다. 주민들을 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밤새도록 심문한 후 김도평의 형, 김세환, 김상환, 김기천, 김동풍, 김창섭, 손형식을 학살하고 새벽에 안도로 떠났다. 희생자들의 연령은 대개 27~28세였다. 연도에서도 손가락총이 있었는데 손가락질을 한 사람은 당시 지서에 근무하던 급사였다고 한다. 급사도 당시 희생된 분들과 평소 아무런 감정도 없었으나, 강압에 위협을 느껴서 임의로 지적을 한 것 같다고 주민들이 증언한다. 이 와중에 김도평의 집과 김영태 형님의 집이 불탔다. 증언한 김일웅 씨는 밤새도록 무서워서 옥수수밭에 숨어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희생자 중 김세환은 큰형, 김상환은 6촌, 보도연맹 희생자인 김성환은 사촌이라고 한다. 국민학교 운동장이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하고, 아버지는 큰형의 시신을 물에 씻어 안장한 후 속앞이로 결국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4)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1995년 7월 17일에 발생하여 7월 24일에 소멸한 태풍 페이(24일 4시경에 한반도의 남해도 부근에 상륙하였고, 바람이 강한 태풍으로, 상륙시 중심 기압은 960hPa, 최대 풍속은 초속 35%였음)의 영향으로 광양만을 출발하여 서해안으로 향하던 선박인 호유해운(주) 소속 씨프린스호가 1995년 7월 23일 14시경 여수시 남면 연도 해안에 좌초되어 5,035톤의 병커A/C와 원유가 유출되어 천연어장인 남면과 돌산, 경남 남해군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좌초 후 무리하게 기관 조작을 실시하다 17시 30분경 엔진에 불이 나면서 폭발과 함께 배 뒷부분이 침수되었다.

인명피해는 승무원 20명 중 19명이 소리로 피신하였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 이후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120척의 함정이, 기름을 옮겨 싣기 위해 13만 톤급 유조선인 호남 다이아몬드호가 동원되었다. 8월 8일의 작업에서 원유 19,000톤이 옮겨졌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작업은 9일부터 중단되었다. 8월 말에는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선체의 위치가 바뀌었고, 원유를 옮기는 순서가 논란이 되어 작업이 지연되었다. 씨프린스호는 11월 26일에 인양되었다. 인양하면서 가라앉은 엔진은 12월 18일에 인양되었다. 인양된 씨프린스호는 필리핀으로 예인되어 선체 수리를 위해 필리핀 수빅만 앞바다에서 머무르던 중에 악천후로 12월 24일 침몰하였다.

당시 전남 여천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유출사고 피해는 231건, 3295ha, 204km의 해상과 73km의 해안을 오염시켰으며, 이로 인해 가두리 양식장과 패류 등 어족자원이 급감하였다.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한국일보 2016. 07. 23 인용)

3. 섬 생활의 변천

가. 연도의 생업

섬 주민들은 마을 앞바다에서 봄이면 도다리, 여름엔 문어, 가을엔 삼치와 갈치, 겨울엔 도미와 광어를 잡아 소득에 보태고 있다. 주민은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나머지는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연도는 마을마다 샘이 2개, 3개 있었는데 특히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다. 게다가 다른 섬에 비하여 수질이 좋아 식수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1970년대 연도마을에 상수도 집수정이 설치되었고, 역포마을은 2007년경, 덕포마을은 2009년경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각 세대에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허드렛물로 사용하거나 우물을 막아버렸다.



역포마을 우물



덕포 상수도집수정

1) 농업

기복이 큰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남쪽 해안을 제외하면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고, 특히 중앙부의 완경사 지대는 농경지로 이용된다. 농경지에서는 쌀, 보리, 콩, 녹두, 고구마 등을 생산했으나 노령화로 인해 쌀이나 보리농사는 거의 짓지 않는다. 고구마는 많은 양을 농사지어 절간한 후 농협 등에 수매하여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었지만, 얼마 전부터 섬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면서 고구마농사도 많이 짓지 않는다.

최근 금오도 방풍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묵전에 방풍을 심어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방풍농사



갯것

2) 어업

근해에서 뽕락, 멸치, 가자미, 쥐치, 도미, 전어, 낙지, 아귀, 삼치, 벵골 등을 어획한다. 특산물로는 돌김, 돌미역, 톳, 천초 등이 있는데, 품질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개발은 전복의 먹이를 위한 다시마 해조류 양식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연도는 해녀가 직접 수산물을 채취하는 나잠업이 마을어업에 중요한 수입원이거나, 현재 대부분의 해녀가 고령화되어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에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계속되는 극심한 수온변동(고온, 저온)과 예전 소형기선저인망(고대구리)이 성행하던 시절에 풍부하던 먹이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형기선저인망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사라지면서 먹이값은 비싸지고 어류판매가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가두리 양식 어가들이 2중, 3중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역포마을 어선



해녀 물질

나. 선박

1) 해운교통

연도에서 정기여객선이 운항한 것은 1930년으로 김부호가 여수를 출발하여 연도까지 운항하였다. 이후 여일호와 창영호, 신양호, 경주호 등이 운항하였다. 1994년 11월 쾌속선 순풍호, 완도 페리호가 취항하였고, 2003년 11월부터는 한림해운의 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가 하루에 2회 운항하고 있다.



역포항 금오고속페리호 도선

다. 연도 주민들의 생애사

1) 연도 동부마을 할머니들의 결혼이야기

“결혼하기 전까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당께.”

2024년 1월 16일 남부마을 경로당에 들렀다. 겨울이라 할머니 여덟 명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TV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있고, 천장을 보고 누워서 옆에 분과 마을 이야기를 나누는 분도 있었으며, 따뜻한 온돌방에서 부족한 잠을 청하는 분도 있었는데 약속을 잡지도 않고 무턱대고 경로당에 들어간 불청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넉살 좋게 “어머님 마을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묻자 “마을 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 “다 할머니들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줄 몰라”, “조금 있으면 노인회장님 오니께 노인회장님에게 들어”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하셨다. 연도마을은 경치가 아름다워 너무 좋다고 했더니 맛장구를 치면서 옛날부터 연도가 경치도 좋고 사람 살기 좋다는 말 씬으로 말문을 여셨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뀌자 할머니 8분이 함께 있는 경로당의 분위기로 보아 해방 전후에 치러졌을 결혼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의 결혼 풍습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할머니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1950년 경인생 호랑이띠로 올해 75세인 강순희 할머니였다. 강순희 할머니의 고향은 남면 우학리로, 남면 소재지가 있는 마을이라 뱃일을 하는 남자들이 왕래하는 기회가 많아 지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인 중 한 사람이 참한 아가씨라고 소개하자 연도마을의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우학리의 강순희 할머니의 친정으로 찾아왔다.

당시 할머니는 부엌에서 고구마를 삶고 있었는데 집으로 찾아온 청년이 맘에 들었는지 찾아오던 날 청년을 따라나서 연도까지 와서 시부모를 만났다. 결혼식은 신붓집이 있는 우학리에서 하고 배를 타고 연도로 와서 가마를 타고 시집왔다. 3살 많은 남편은 푹푹하고 야무지다고 당시에도 평판이 좋았는데 지금은 연도마을 노인회장을 하고 있다.

잉꼬부부로 소문난 강할머니 내외는 슬하에 2남 4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1남은 4살 때 할머니가 깃것을 하러 나간 사이에 우물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로 잃었다. 아들을 잃고 딸만 넷을 두고 대를 이어갈 아들을 염원했는데 다행히 막내아들을 얻어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요즘이야 딸만 둔 부모가 효도 비행기 탄다면서 남녀 구별을 않지만 1980~90년대까지도 남아선호 문화는 짙게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939년 안도 서고지가 고향인 86세 김명자 할머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24살 때인 1962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노처녀라 불렸다. 보통은 18세에서 22세 정도에 결혼을 많이 해서 24세가 되어서는 노처녀라고 결혼을 서둘렀으나 중매가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다행히 남편 심장리에 사는 친척이 중매하여 선을 보았는데 안도 서고지의 친정으로 남편이 될 연도의 총각이 찾아왔더라. 선을 볼 총각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친정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모르는 청년이 앉아 있는데 부모님이 옆에 앉아 보라고 해서 앉아 있기는 했으나 부끄러워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결혼식 날에야 제대로 얼굴을 보았더라. 초야를 어떻게 치렀냐는 조사자의 짓궂은 물음에, 결혼식 초야는 신랑 신부 모두가 너무 순진한 데다 가슴도 떨리고 부끄러워서 첫날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다고 이야기하신다.

세 번째는 돌산 신기마을에서 시집을 온 정영자 할머니가 주인공이다. 정영자 할머니는 7남매 중 위로 오빠가 있고 딸로서는 첫째였다. 신기마을에서 아버지가 어장을 크게 해서 비교적 넉넉한 집안이었다고 한다. 시댁 역시 연도에서 어장을 했는데 어장하던 사람끼리 인연이 되어 중매로 결혼하였다. 그런데 돌산에서 절해고도인 연도로 시집을 간다고 하자 대마도로 시집보낸다고 이웃들이 흉을 보았다고 한다.

결혼식은 돌산 신기마을에서 치렀는데 결혼식을 위해 왔던 신랑은 선창에서 말을 타고 처가로 왔다. 정영자 할머니 부부는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았다고 한다. 사라호 태풍이 오기 전인 1958년에 결혼했는데 시집와서 1년 만에 큰 태풍을 겪었다. 당시 사라호 태풍은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마을 대부분의 집이 물에 잠겼는데 우뚝가사리나 파래와 같은 해초들이 뒤엉켜 피해가 컸다. 또 한 번 침수된 가옥들은 비가 오면 문제가 많아서 결국

집을 새로 짓게 되었다고 한다.

연도에서도 봄이면 화전놀이를 크게 했는데, 전에는 등대나 마을 뒷산에서 주로 하다가 마을회관이나 학교와 같이 마을 가까이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한다. 화전놀이와 함께 굿판도 열렸는데 현재 경로당 할머니들의 전성기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굿판을 꾸몄다. 굿판의 남자는 상쇠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로 구성되었고 남면 농악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솜씨가 좋았다. 모여 있는 할머니 중에는 장구, 북, 징 등 한가지씩 악기를 연주하며 솜씨를 자랑했던 그 시절 회상에 젖는다. 연도 사람들의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다. 초등학교만 있던 연도에서 중학교 이상 진학하려면 여수나 순천, 또는 친척들이 있는 도회지로 유학을 보내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녀들을 유학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돌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공부를 잘했던 자녀 중 딸은 현재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아들도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서 자랑하신다. 자녀들 모두 여수로 유학을 보냈는데 일이 많아 자녀들을 자주 찾지 못했더니 자녀가 하숙하던 곳에서 의붓어머니냐고 물어봤을 정도였다고 한다. 시집온 후 일이 많던 정영자 할머니는 시집온 후 친정도 몇 번 찾지를 못했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네 번째는 1947년생인 김연덕 할머니의 결혼 이야기이다. 김연덕 할머니는 같은 섬에 살던 6살 많은 둘째 오빠 친구와 결혼했다. 마을 주민으로부터 증매가 들어오자 친정어머니와 둘째 오빠는 반대하였으나 큰오빠와 친정아버지가 찬성하여 결혼이 성사되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오빠였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 없이 1967년 21세 나이에 결혼했다. 스무살이 넘었지만, 김연덕 할머니는 체형도 작고 어리게 보여 주변에서 “애가 결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1962년 24살을 노처녀라 부르던 마을의 결혼 풍습은 5년 후인 1967년이 되자 25세가 넘는 처녀들이 많아지면서 21세 처녀가 애 같다고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이다.

같은 마을끼리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었지만, 가마를 타고 시댁에 갔다. 붉은 팔을 그릇에 담아 가마에 넣어주었는데 다리를 건너거나 마을 골목을 옮길 때마다 가마에서 흘렸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혼식에 잡귀가 들지 말고 부정 타지 말라는 주술적 의미였다고 한다. 가마에는 요강도 넣어주었는데

가까운 이동 거리에 용변 볼 일이야 없었겠지만, 신부의 가마에 요강을 실었던 풍습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연덕 할머니 부부는 슬하에 4남매를 두었다.

같은 마을에서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친정과 시댁이 한마을에 살다 보니 좋은 일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궂은일이 생기거나 하면 구설수가 더 많아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한다.

다섯 번째는 1936년 쥐띠인 김복순 할머니 이야기이다. 김복순 할머니는 여수에서 연도에 들어와 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정아버지를 모셔야 하였기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십수 년을 함께 살다 섬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여수로 나가면서 부부는 갈라섰다고 한다.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딸은 지금은 여수로 나가서 잘살고 있다고 한다.

여섯 번째로 이야기해주신 박희자 할머니는 1936년생으로 고향은 여수 시내 서교동으로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연도와의 인연은 연도로 시집을 온 사촌 언니 때문이었다. 사촌 언니의 소개로 당시 해안통에서 선구점 상회를 경영하던 부친이 군에서 제대한 사똥감을 한 번 본 뒤에 마음에 들었던지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정한 혼처에 대해서는 그냥 따르던 시절이었다. 남편은 육군병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연도마을에서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했다. 결혼은 여수 구항 중앙시장 부근에 여수예식장이 생겨서 처음으로 예식장에서 결혼한 세대이다.

연도에 살던 신랑이 이틀 전에 신붓집으로 와서 잠을 자고 예식장으로 가서 결혼식을 했다. 당시 연도까지 여객선 응천호가 운항하였는데 항로는 돌산 군내리를 시작으로 - 돌산 신기(검단) - 화태 - 두라 - 유송리 - 우학리 - 미포 - 안도 - 장지 - 서고지 - 연도를 오가는 항로로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가는 길에 어선을 빌려서 연도까지 갔고, 연도에 도착한 후에는 선착장에서 시댁까지 가마를 타고 이동했다. 결혼 후 안타깝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6남매를 힘겹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하게 자라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아서 지금은 선박 관련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곱 번째로 이야기해 주신 손종금 할머니도 1936년으로 연도의 서부마을에서 동부마을로 시집을 왔다. 1957년 22살에 결혼했는데 남편과는 7살 차이가 났다. 당시는 22살에 결혼이 늦다고 노처녀라고 불렸다고 한다. 동부마을 주민이 정월에 중매해 주었는데 결혼은 선달인 12월에 했다. 같은 마을이라 지금도 경로당에 시누이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단다.

여덟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939년생인 이봉해 할머니다. 제주도 남제주군 법환 출신인 이 할머니는 연도로 해녀 활동을 왔다가 연도의 총각을 만나서 결혼했다. 정기 여객선도 없던 제주 친정은 결혼 후 평생 두 번 밖에 가지 못했다. 담담히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눈에는 당시의 법환포구가 그려져 보였다. 이 할머니가 섬을 떠나지 못한 것은 4남 2녀의 자녀를 낳고 키우느라 살기에 바쁜 시절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어려운 형편으로 연도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제주도의 가족들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연도마을 경로당에서 8분의 할머니들을 만나 잠시 시간 여행을 하며 1950~60년대 연도마을의 결혼 풍습과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금은 많이 변해 버린 젊은이들의 결혼 이야기와는 다른 정겹고 애환이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경로당의 아랫목 만큼이나 정감있게 느껴졌다. 특히 동부마을 경로당에는 박희자, 김복순, 손종금 할머니 3명이 동갑내기라서 함께 있는데 동무가 좋아서 생활하기가 더 좋다고 한다.



연도의 할머니

4. 연도의 민속문화

가. 연도의 지명유래

1) 연도리 남면의 법정리이다. 섬모양이 솔개 같이 생겼다 하여 소리도(所里島)라 하다가 조선시대 말부터 소리도를 솔개로 풀이하여 ‘솔개 연(鳶)’자를 써서 연도라 하였다. 법정리 연도에는 연도리와 역포리라는 2개의 행정리가 있다.

- 괴목나무(나무): 연도마을 북쪽에 있는 괴목나무 30그루.
- 느티나무(나무): 연도마을 북쪽에 수령 150~200여 년으로 추정되는 8그루의 느티나무.
- 제당: 당제를 모시는 제당은 상당, 중당, 하당의 세군데가 있다. 상당은 마을 뒷산 비자나무 밑이며 중당과 하당은 당집으로 되어 있다. 중당에는 ‘대성산왕신위’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제당 주위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비자나무, 느티나무가 우거져 있다.
- 모경골(곶): 역포마을 북쪽에 있는 곶.
- 속평굴(솔팽이굴)(굴): 연도마을 남동쪽의 소리도 등대 밑에 있는 굴로, 굴 안에 있으면 동부마을 부엌 솔에서 누룽지를 굽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구전이 있음.
- 까랑목(목): 까랑포마을 서쪽에 있는 목으로 사람 목처럼 생겼음.
- 시리봉(시루봉, 필봉산)(산): 연도마을 남동쪽에 있는 산. 시루떡을 만드는 시루같이 생겼음. 높이 약 231m.
- 간여(간서)(섬): 연도마을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동에서 서로 향해하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에 왜적이 함부로 연도마을을 침입할 수 없었다고 함.
- 검등여(검등서, 검등섬)(섬): 역포마을 서북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바위로 되어있고 항상 여 전체가 물보라와 어울려 검은빛을 발함.
- 산태암(산태바구, 삼태암)(섬): 시리봉산 동쪽 바닷가와 까랑포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섬. 세개가 삼태성의 모양으로 있음.
- 작도(까치섬)(섬): 남부마을에서 동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도로 까치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까치섬으로 불리다가 ‘까치 작’자를 써서 작도로 불림.
- 떡개(떡포, 병포)(섬): 연도마을 남쪽의 가랑목에 있는 섬. 동쪽 뒤에는 시루봉(필봉산)이 있고 앞에는 개가 있음. 갯가에서 잡히는 해산물이 떡을 사 먹을 정도로 다른



연도 지명지도

마을보다 많아서 떡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함

- 농골<바위>: 연도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진시황제 때에 삼신산(三神山)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서불이 동남동녀 5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이곳에 글을 남겼다고 함.
- 연도수도<해협>: 연도리와 안도리 사이의 물길
- 간여암등대<등대>: 연도마을 앞 2km 정도의 바다 가운데 세워진 등대로 1920년경에 건립(建立). 높이 200여m
- 소리도등대[연도등대]<등대>: 연도마을 동쪽에 있는 등대
- 장군묘<묘>: 연도리 동북쪽 약 1km 지점에 있는 묘. 중국 시황제 때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자들 중 장군이 죽어 이곳에 묻혔다고 해서 장군묘라고도 하고, 해적단이 연도를 장악하여 해적 행위를 할 당시 해적단의 우두머리가 죽자 이들의 묘를 장군묘라고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짐.
- 공동묘지<묘>: 역포마을 남서쪽에 있는 공동묘지
- 봉화대<터>: 필봉산 정상에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 군시설로 인하여 없어짐.
- 청기와 망루<터>: 연도마을 필봉산 중턱에 있으며 장서린이란 해적의 전설이 전해짐
- 덜밀<지역>: 연도마을 북쪽 큰골 북쪽 산자락으로 너설지역 아래
- 큰골<지역>: 연도마을 북쪽 큰 골짜기
- 역포재<고개>: 연도마을에서 역포마을로 가는 고개
- 솔무정<해안>: 연도마을 동쪽 해안에 있는 지명
- 돌수논밀<해안>: 연도마을 동쪽 해안에 있는 지명
- 글쓴바위<바위>: 진시황의 불로초 전설이 내려오는 까랑포 마을의 해안절벽으로 사라호 태풍으로 글쓴바위가 무너졌다고 전해옴
- 까랑포세지<마을>: 연도 남부마을
- 까랑포(남부)<마을>: 연도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 동풍(東風)이 불 때면 파도에 밀리는 자갈 부딪치는 소리에 갓 시집온 새색시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한번 울고, 해가 거듭할수록 이 자갈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 떠날 때는 자갈소리를 잊을 수 없어서 한번 더 운다고 함. 동풍이 불면 파도가 매우 높은 남부마을의 자갈이 까랑까랑 운다하여 까랑포(가랑포)라 칭함.
- 단지끝<해안>: 연도 남부마을 해안지명
- 옛골<해안>: 연도 남부마을 해안의 여가 있는 골
- 호안<해안>: 연도마을 선창이 있는 곳으로 호수 안처럼 생겨서 호안이라고 함

- 논골<골짜기>: 연도마을 남서쪽의 논이 있는 골짜기
- 마당바<바위>: 연도마을 남서쪽 해안의 바위
- 논골곶<해안>: 연도마을 남서쪽 논골의 곶머리
- 잠깃물<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지명
- 돌당여<여>: 연도마을 서쪽 해안에 있는 여
- 신날곶<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 신날곶<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끝으로 신날은 신너리로 거센 파도가 닿는 해안으로 보임
- 돌떨어진데<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 나바론짜진곶<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의 절벽. 나바론은 그레고리픽 주연의 영화 나바론 요새의 절벽과 닮아서 명명한 것으로 보임.
- 파금<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 무심이<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 할암<바위>: 연도마을 서쪽 해안
- 들넘<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 땅포<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 땅포곶<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 목넘<해안>: 연도마을 서쪽 해안

2) 덕포마을

- 필봉산<산>: 덕포마을 동쪽의 산으로 필봉산의 모양이 솔개 모양이어서 소리도 또는 연도라 함
- 산타바자갈<해안>: 덕포마을 동쪽 해안의 자갈밭
- 산타바<바위>: 덕포마을 동쪽 해안의 바위로 산태바위라고도 함. 주변이 산사태가 난 것처럼 보이는 바위.



필봉산



대룡단과 소룡단

- 옛도<해협>: 여와 해안 사이의 물살이 빠른 곳. 도는 남해안에서는 [또]로 발음되는 해양지명으로 물살이 빠른 해협을 말함. 싱갱이도, 히도, 장군도도, 손돌목, 울돌목 등이 있음
- 줄여<여>: 덕포마을 동쪽 해안의 여로 여가 줄을 이루며 이어져 있음
- 줄여자갈<해안>: 덕포마을 동쪽 해안으로 줄여가 있는 자갈밭
- 녹난바[녹산바] - 녹이난 절벽<바위>: 철분이 있는 해안의 절벽 바위가 붉게 녹이 나서 녹난바라고 함
- 만작굴, 짝지<해안>: 덕포마을 동쪽 해안의 해식동굴
- 내닛여굴<동굴>: 덕포마을 동쪽 해안의 해식동굴
- 셋땀짐푸는데<해안>: 소리도등대 부근 동쪽에 있는 선착장
- 용댕이셋땀<지역>: 용댕이 동쪽 지역 셋바람이 부는 곳
- 용댕이하늘땀<지역>: 용댕이 서쪽 지역 하늬바람이 부는 곳
- 가랑이벌린곳<지역>: 큰용댕이 지역 안쪽으로 큰용댕이 지형이 가랑이를 벌린 것처럼 생겼음
- 구녕진밭<지역>: 동굴이 있는 아래 지역으로 구녕은 구멍의 방언
- 정강이통[피난바, 편안바]<바위>: 큰용댕이 지역으로 사람의 정강이를 닮은 지역이 편안한 바위라는 의미임
- 높은바 다랭이<지역>: 큰용댕이에 있는 높은 바위가 있는 지역
- 큰용댕이, 작은용댕이<바위>: 연도 등대 부근에 있는 큰 바위 지역으로 동쪽의 길게 뻗은 지역이 큰용댕이, 등대아래 서쪽이 작은용댕이 지역임. 일제강점기 지도가 제작된 이후 오랫동안 큰용댕이와 작은용댕이가 서로 바뀌어 부르고 있음. 용댕이는 용의 등성이가 변한 말.

- 코굴 - 대릿여<동굴>: 덕포마을 동쪽 해안의 해식동굴
- 여도<옛도><해협>: 여와 해안 사이의 물살이 빠른 곳
- 끝남굴<동굴>: 덕포마을 동쪽 해안의 해식동굴
- 끝넘<지역>: 연도 등대 아래에 있는 해안 지명
- 작은용댕이여<여>: 연도 등대 아래에 있는 여
- 여솔팡<굴>: 솔팽이굴
- 잔용댕이<바위>: 작은용댕이
- 못솔핑<지역>: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안가마<해안>: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무뽀바<바위>: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물을 뽀는 바위
- 가마패<해안>: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열은바위, 여튼바위, 여뽀바<바위>: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금광산<광산>: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구중바<바위>: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남승바<바위>: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덕석바위<바위>: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덕석은 벚짚으로 짠 멍석
- 섬통개<개>: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대바위 [대바구, 죽암] <바위>: 연도마을 포구에서 덕포마을 쪽의 해안선에 있음. 생긴 모양이 마치 3단계로 된 돛단배와 같이 생겼으며, 대나무 마디처럼 층층이 집을 짓는 형상과도 같음.
- 대바위통<통>: 덕포마을 남쪽 해안 대바위가 있는 곳의 통
- 개터굴<굴>: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이른넘머리<해안>: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으로 이른 넘어가기 어렵다는 의미
- 넘머리<해안>: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검정바<바위>: 덕포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검은 바위
- 풍개<개>: 덕포마을 남쪽 해안 지명
- 돌구녕<해안>: 덕포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구멍이 있는 바위가 있음
- 노루빠진굴<골짜기>: 덕포마을 서쪽 해안으로 노루가 물에 빠졌다는 골짜기

- 머릿개<개>: 덕포마을 서쪽 해안 지명
- 머릿개끝<해안>: 덕포마을 서쪽 해안 머릿개가 있는 끄트머리
- 솜너리<해안>: 덕포마을 서쪽 해안 지명
- 코끼리바위<바위>: 덕포마을 서쪽 해안에 있는 코끼리 코를 닮은 바위로 코끼리가 바다에 코를 담근 듯이 보여서 연도 관광사진으로 많이 알려짐
- 채빈여<여>: 덕포마을 서쪽 해안 초분이 있던 곳에 있는 여
- 코굴 <굴>: 덕포마을 서쪽 해안에 있는 동굴로 조수차이로 물이 들고 날 때 코고는 소리가 난다고 함
- 머릿개산<산>: 덕포마을 남서쪽에 있는 산

3) 역포마을

- 제당(祭堂): 1929년에 서달순 등이 중심이 되어 세웠다 하며, 마을 뒷산 기슭에 있는데 목조와가로 상당, 하당, 두 채가 있다. 상당엔 여신옷이 모셔져 있고, 하당은 온돌방 1개와 부엌이 딸려 있는데 제기를 보관해 둠
- 배비끝[배비말, 진걸음곶]<곶>: 역포마을 동쪽에 있는 곶으로 사람의 등을 배처럼 얹어 놓은 것 같음. 지형이 길게 뻗어 있어 걸음을 길게 걷는 곶이란 뜻
- 절벽<바위>: 역포마을 서쪽에 있는 절벽. 용이 비오는 날 승천하다가 번개를 맞아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형성되었다 함.
- 기름여[유서] <섬>: 연도마을 서쪽에 있는 검게 보이는 작은 섬. 마치 기름을 칠한 것처럼 햇빛에 반사되면 검은빛을 발함.
- 역마터<터>: 연도마을 북서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터. 조정에서 유배 보낼 때 이곳을 거쳤다하여 유래. 지방이나 외지 사람이 배를 오르고 내렸다하여 뜨네기들의 나루 터라고도 함.
- 신갱이또[신강수도]<해협>: 안도와 연도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조류의 흐름이 많아 파도가 높고 물살이 빠른 곳으로 '신갱이'란 이름은 동, 서 바다의 바닷물이 조수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는 모양이라 하여 '신갱이또'라고 한다고 함. 신갱이의 표준어는 '실갱이'나 '승갱이'가 있음

- 지북산, 집북산, 취북산(산): '집 위에 있는 산'이 변한 말. '집위에산 > 집우에산 > 집우계산 > 지북산'으로 변함
- 나그네닷는곳<해안>: 역포마을 북서쪽 해안 지명
- 납닥여<여>: 역포마을 북서쪽 해안 지명
- 검등여<여>: 역포마을 북서쪽 바다에 있는 검은 빛의 암초(여)
- 이돌네논곶[이동이네논곶]<해안>: 역포마을 북쪽의 해안지명
- 오인네밭곶<해안>: 역포마을 북쪽의 해안지명
- 애린데밀[어려운데밀]<해안>: 역포마을 북쪽의 해안지명으로 접근이 어려운 갯바위 지역
- 신여<여>: 역포마을 북쪽에 있는 여
- 간데여<여>: 역포마을 북쪽의 신여와 신갱이목 사이의 여
- 신갱이목<목>: 역포마을 북쪽 신갱이또 부근의 목
- 탈상바위<바위>: 역포마을 북쪽의 해안의 바위로 한 주민이 육지에 살던 부모 장례 후 상복을 벗기 위해 섬을 떠나려 했으나 풍량이 심해 섬을 떠날 수 없게 되자 안타까운 마음에 섬의 가장 북쪽의 넓은 바위에서 부모의 묘지 방향을 바라보며 탈상제를 지냈기 때문에 이 바위를 '탈상바위'라 부르게 됨
- 데마바<바위>: 역포마을 북쪽의 해안지명
- 돌무너진데<너설>: 바위가 벼락을 맞아 무너진 곳
- 큰오지박<바위>: 역포마을 동북쪽 해안 바위
- 간데오지박<바위>: 역포마을 동북쪽 해안 바위
- 작은오지박<바위>: 역포마을 동북쪽 해안 바위
- 넘은개<월포><해안>: 역포마을 동북쪽 해안
- 몰랑<고개>: 역포마을 중앙의 사람이 사는 높은 지역
- 애방널<지역>: 아기방너리의 의미로 유아 사망시 돌무덤을 만들었던 터
- 아랫몰<마을>: 역포마을의 아랫마을
- 송놀너리<지역>: 역포마을 동쪽 해안
- 가장터<터>: 역포마을 동쪽 해안으로 가매장을 하던 터
- 처작골<지역>: 역포마을 동쪽 해안의 골짜기
- 배뱅이<지역>: 역포 동쪽 반도로 '배뱅이툽'과 '배뱅이여'가 있는 지역

- 진걸음<길>: 걸음을 길게 걸어야 하는 길. 역포 동쪽 배뱅이로 가는 길
- 배뱅이통<통>: 역포마을 동쪽 배뱅이에 있는 통. 통은 물이 차서 건널 수 없는 절벽의 사이를 일컫는 우리말
- 배뱅이여<여>: 역포마을 동쪽에 있는 여, 배뱅이는 물이 빙빙도는 곳
- 새땀<지역>: 셋바람이 부는 지역
- 고래여<여>: 고라짐에 있는 여
- 고라징이, 고라짐<지역>: 파도가 세차 고래가 물을 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함. 해안의 모양이 고래의 등처럼 생겨서 고라짐이라고도 함. 고라는 소라의 고어로 소라처럼 구부러진 해안.
- 세지, 세지걸<지역>: 역포 동남쪽 해안지명
- 들섬바위<바위>: 역포 동남쪽 해안으로 20여년 전 마산 성지여고 교사가 낙시를 하던 중에 풍랑으로 사망함
- 민산<산>: 역포와 연도 사이에 있는 산
- 쉬는 돌팍<바위>: 역포와 연도 사이에 있는 쉬어가던 바위로 두 마을의 경계임
- 역개골, 여개골<골짜기>: 역포마을 남쪽의 골짜기
- 큰산<산>: 역포마을 서남쪽 600여 미터에 있는 산
- 빈달길<길>: 역포 마을 남쪽으로 연도마을로 가는 길이 미끄럽고 비탈짐
- 캣지박<코지박><바위>: 역포마을 서쪽 해안의 코처럼 바다로 튀어나온 바위
- 마당너머<지역>: 역포마을 서쪽 해안 지명. 마을 공동의 보리마당 너머의 지역
- 작은중터<터>: 역포마을 서북쪽 해안 지명
- 십장굴<굴>: 역포마을 서북쪽 해안에 있는 굴
- 큰중터<터>: 역포마을 서북쪽 해안 지명
- 이십낭굴<굴>: 역포마을 서북쪽 해안에 있는 굴
- 알매섬, 알마도, 알미섬, 안마도<섬>: 역포마을 서쪽에 있는 무인도로 모양이 뛰는 망아지 같고, 다르게는 새들이 알을 품는 둥지 같음
- 하늘땀<지역>: 하늬바람이 부는 지역이나 마을. 역포서쪽 해안을 일컫음
- 큰산너머<지역>: 역포마을 서남쪽 600여 미터에 있는 산 너머
- 돌넘, 덜넘<지역>: 역포 서남쪽 해안, 덜은 돌이 많이 흘러내린 너덜지역을 이르는 말로 너덜지역 너머란 뜻임

나. 연도의 설화와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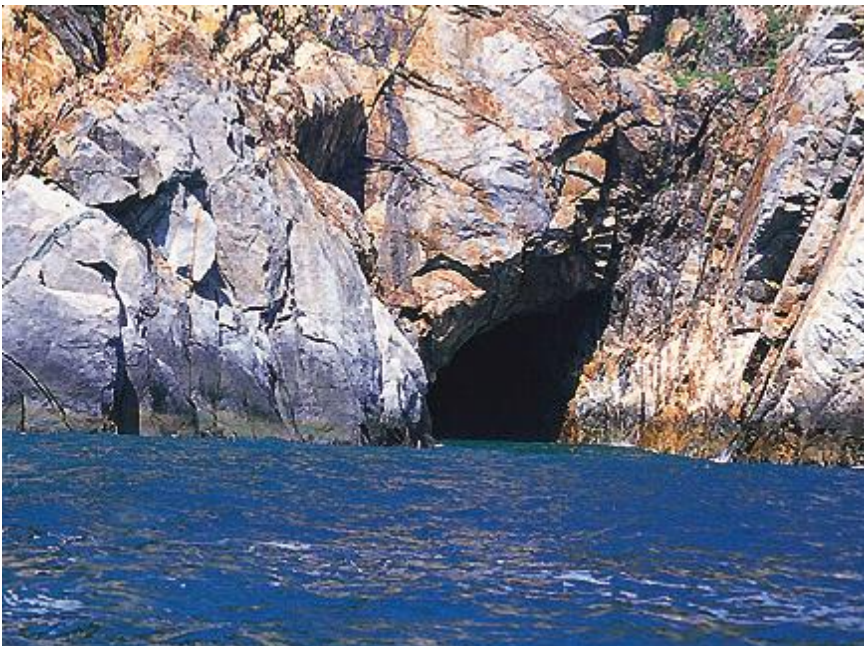
1) 설화

(1) 솔팽이굴의 보물

옛날 네덜란드 무역선이 연도 근처를 향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동굴 쪽으로 밀리면서 난파되었다. 이 사고로 배에 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혼자만 살아남은 이 사람은 배에 실려 있던 보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동굴 속 어딘가에 감춰두었다. 이후 구조되어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72년 무렵,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KATUSA) 손연수 씨는 우연히 지도를 놓고 보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자세히 지도를 본 결과 보물 지도에 표시된 위치가 연도 솔팽이굴이었으며, 지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난파된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구조되었던 네덜란드인의 3세였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동굴을 탐사해 보았으나, 동굴 안쪽이 막혀 있어 특별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동굴 속 어디엔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솔팽이굴

믿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솔팽이굴 속으로 들어가면 동부마을의 어떤 집 부엌에서 누룽지를 굽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굴이 동부마을 밑으로 뚫려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⁵⁾

(2) 서불과차(徐市過此)의 전설이 깃든 까랑포

까랑포 바닷가 절벽에 “徐市過此”라고 새겨진 주홍색 글씨가 있었다고 한다. 이 글씨는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명을 받은 서불이라는 사람이 동남동녀 500명을 데리고 삼신산(三神山)의 불로초를 찾기 위해 왔다가 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바위가 무너져 버려서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논골 바닷가 절벽에도 이와 비슷한 글씨가 있었으나 너무 오래되어서 판독이 불가능하다.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일행 가운데 두 명의 장군이 죽어 묻혀 ‘장군묘’라 부르는 묘지 2기가 남아있다는 전설도 전한다.

(3) 큰 도둑 장서린(張書隣)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장서린이라는 도둑의 괴수가 필봉산에 청기와 망루를 지어놓고 해적 행위를 하다가 조정의 군사에게 체포되어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지금도 연도리의 노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장서린이 큰 도둑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서린이 큰 도둑놈 집터”라는 곳으로 불리기도 한다. 향토 사학자들이 장서린의 유적을 발굴해 보았으나, 확증할 만한 유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청기와 조각만 얻었다고 한다.

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금오도 시티투어 자료집』, 2006.

다. 연도의 음식문화

소리도는 마을별로 토지의 면적과 외적인 환경에 따라 음식문화가 조금씩 다르다. 역포마을은 수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해조류 등을 주로 먹었고, 연도마을은 비교적 논과 밭이 많아 농작물을 이용한 음식을 했으며, 덕포는 농업과 수산업을 병행하였다. 특히 연도 주변 수심이 깊은 바다에 빗굴이 자생하여 한때 소득원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노령화 등으로 해녀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수심 5m 이상은 들어가지 않고 수심이 얇은 곳에서 빗굴을 채취하고 있다.

뿔락김치는 몇 가지 유래가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낚시꾼들이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 지금은 연도 지역에 토착화되어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하여 여름이면 연도 사람들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

삼월삼진날에는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했는데 산과 들로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놀았다. 화전놀이를 하면 참꽃, 썩등을 전으로 부쳐 먹었는데 다른 섬과 달리 문어전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 특징이다. 당제에 사용한 음식은 주로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대부분이었으며 홍합, 조기, 돔, 나물,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등을 올렸다.



뿔락김치



뿔굴껍질

라. 연도의 신앙

1) 당제⁶⁾

연도에서는 연도마을과 역포마을에서 따로 당제를 지냈지만,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더 이상 당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1) 역포마을 당제

마을에서는 당집을 ‘제당’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뒷산인 지복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신격은 당할아버지로, 제당은 주위가 돌담으로 둘러져 있으며, 규모는 약 300평 정도 된다.

입구에서부터 제당까지 시멘트로 길을 내었으며, 주위에는 나무들이 서 있다. 제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에는 당할아버지의 위패인 ‘영당사직신위(靈堂社稷神位)’가 모셔져 있으며, 하당은 제관들이 제물을 장만하고 정성을 드리는 곳이다.

상당과 하당은 각각 독립된 건물로 상당 바로 밑에 하당이 위치하고 있다. 상당과 하당은 같은 콘크리트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 건물이지만, 입구는 각각 따로 되어 있다.

상당 입구 쪽에는 당제를 지낼 때 함께 산신제를 지내는 터가 있는데, 이곳에 산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차려둔다. 상당과 하당 중간지점에는 소화 15년(1940년) 마을 사람들이 새로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신사증축기념비’가 있다. 오른쪽에는 당샘이 2곳 있는데, 위쪽에 있는 당샘은 제를 모실 때만 사용하고, 아래쪽 당샘은 1993년 개조한 샘으로, 제관들이 세수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신사(神社)’라는 용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제당을 일제강점기에 증축했다는 점, 신사증축기념비라는 비석 등과 더불어 제당의 모양도 일본 신사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여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사는 이호준, 배인영, 구도옥씨 등이 중심이 되어 예전의 건물을 헐고 새로 증축하였음을 비석의 뒷면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제당을 증축하기 이전에도 조그마한 당집이 있었으며, 이때에도 당할아버지를 모셨다는 증언을 통해 볼 때, 일제강점기에도 당제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교육지책이 아닌가 한다.

6)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도서 지역 무형 문화유산』, 2013.

제관을 이곳에서는 '당주'라고 하는데, 두 부부의 생기복덕이 맞아야 하며,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부당주는 지난 해의 당주가 맡는데, 당제에 쓰일 제물을 여수장에서 구입해 오는 일을 맡는다.

하당은 온돌방 1칸과 부엌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 제기가 비치되어 있다. 당주 부부는 12일부터 하당에 올라가 생활하면서 청소, 금줄 치기, 황토 깔기 등의 활동과 당제가 끝날 때까지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드린다.

14일 밤 자시에 제를 지내고, 15일 오전 바닷가에서 헌석제를 올린다. 그리고 16일 제당과 주위를 깨끗이 정리한 후, 마을로 내려오는데, 당주 부부는 당제와 헌석제를 모두 주관한다. 당제는 당주 부부 외에 누구도 참석하지 못한다. 오직 당주 부부만 제를 지내는데, 제를 올리는 순서는 먼저 진설한 후에 향불을 피워 강신을 기다렸다가 제주를 1잔 올리고 소지를 한다. 당주 부부가 음복한 후에 제상은 그대로 두었다가 새벽에 치운다. 마지막으로 소지를 올리는데, 그 내용은 마을이 평안하고 바다에서의 무사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역포마을 당산



역포마을 당집



신사증축기념비



당집 입구

제관이 제당에서 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를 하면 매구꾼들이 매구를 치면서 상당으로 올라와 함께 음복에 참여한 후, 당굿을 치고 내려와 판굿을 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논다.

헌석제는 ‘도제’라고도 하며, 15일 오전 당주가 준비한 큰 상과 원하는 집에서 각자 준비한 음식상을 선창으로 가져와 진설한다. 이후 당주가 용왕님에게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어 마을 이장과 개발 위원장 등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헌석제를 지내는 이유는 바다에서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며, 수중고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헌석제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당주는 각 상에서 제물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어 그릇에 담아 물밥을 만든 다음, 선창 주위와 바다에 뿌리면서 마을사람들의 기원이 이루어지길 염원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제 음식을 음복하며 매구를 치고 즐겁게 놀았다.⁷⁾

(2) 연도마을 당제

마을에서 당제를 모시는 장소는 상당, 중당, 하당의 세 군데이다. 상당은 뒷산 비자나무 밑이며, 중당과 하당은 당집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는 세 곳에 다 제를 올렸으나, 최근에는 상당과 중당에만 올린다.

상당에 올리는 제를 ‘산신제’라고 하며, 정월 14일 밤에 올린다. 중당에는 ‘대성산왕신(大聖山王神)’을 모시고 있으며 여기에 올리는 제를 ‘당제’라고 하는데 15일 밤에 올린다. 제당 주위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비자나무, 느티나무가 우거져 있다.

제관은 12월 15일 마을 어른들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집안에 사망이나 이혼, 출산, 간음 등의 부정한 일이 없어야 한다.

제관은 정월 7일 하당에 올라가서 제장을 청소한 후,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 정화한다. 매일 목욕재계를 하고 온 정성으로 지성을 드리는데, 제실, 방안, 토방, 화장실 등에서 신는 신발이 따로 있다.

14일 저녁에 제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10시 30분쯤 상당으로 올라가 산신제를 올린다. 비자나무 아래에 있는 상당 제단에 간략한 제물, 즉 고사리, 도라지, 버섯 같은 산나물과 대추, 곶감, 밤 등의 과실을 올린다. 메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낫쇠 솔으로 짓는다.

제의 순서는 먼저 분향을 한 후에 진설을 한다. 헌작은 초헌, 아헌, 종헌 때

7)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 『여천군의 문화유적』, 삼화문화사, 1988, 260쪽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함.

각 한 잔씩 3잔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의 내용은 지난 해의 보호에 감사드리고 새해의 평안과 풍농, 풍어 및 일 년 내내 해난 사고가 없기를 동·서·남·북 용왕님께 비는 것이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하고 술, 과일 등을 제단 주변에 뿌린다. 이렇게 하여 산신제가 끝나면 상을 들고 중당으로 내려온다.

본당(중당)에서는 상을 따로 차려서 ‘대성산왕신위(大聖山王神位)’라고 쓰인 위패 앞에 올린다. 중당에 올리는 제물은 상당의 제물에 탕과 포 등을 포함시켜 좀 더 걸게 올리며, 진설이 끝나면 당집 뒤에 있는 밭에 3상을 차린다. 분향을 한 다음 진설을 하고 초헌을 올린 후 고축한다. 조금 있다가 아헌과 종헌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 후에 제관이 음복을 함으로써 제는 다 끝나게 된다.

매구꾼들은 중당과 당집 뒤에 있는 밭에 차린 3상 앞에서도 매구를 친다. 나뭇잎을 모아 세군데 깔아 놓고 그 위에다 제물을 조금씩 떼어 놓은 후에 매구를 치고 마을로 내려온다.

정월 보름날 9시쯤 바닷가에 매구를 치고 나오면 집집마다 한 상씩 제물을 차려 가지고 나와 헌식을 한다. 제관이 나와서 잔을 올리고 구축을 하며 절을 한다. 여성들도 자기 집 상에서 절을 하며 풍농과 풍어, 일 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특히 바다에서 사고가 없기를 빈다.⁸⁾



연도마을 당집

연도마을 당산

8)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 위의 책, 261~262쪽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함.

2) 기독교

(1) 연도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이다.

1952년 8월 18일 서울영락교회에서 파송한 방신학, 배인석 전도사가 연도고등공민학교에서 심령부흥집회를 열어 교회가 시작되었다. 1952년

12월 순천노회에 등록하고 연도교회가 설립되었다. 1957년 연도리 472번지에 목조합석 2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 이전하였고, 1971년 11월 연도리 420-1번지에 48평 규모의 벽돌슬레이트 건물을 신축하였다. 1992년 연도리 420-1번지에 철근콘크리트슬라브 50평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차도진 목사가 시무중이다.



연도교회

- 1952. 10. 06. 연도리 435번지(노동진 집)로 기도처를 옮겨 예배 계속
- 1952. 12. 02. 순천노회에 등록, 총회에 가입,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도교회라 칭함
- 1956. 07. 09. 연도리 39번지에 천막을 치고 예배 계속
- 1956. 07. 28. 태풍으로 천막 전파, 연도리 1590-9번지(최금진 집)로 옮겨 예배 계속
- 1957. 01. 08. 연도리 472번지에 목조합석 25평 교회건물 신축 입당예배
- 1971. 11. 30. 연도리 420-1번지에 벽돌슬레이트 48평 교회건물 신축 헌당식 거행
- 1992. 연도리 420-1번지에 철근콘크리트슬라브 50평 교회건물 신축

(2) 역포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로

1978년 3월 20일 연도교회에서 분리되어 연도리 1241번지 역포마을에 40평 규모의 벽돌슬레이트 건물을 신축하였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삼제 목사가 시무중이다.



역포교회